천년의 맛과멋 전남
호남매일tv
E-mail. ko930112@naver.com

호남매일

광주시 북구 우치로 649(생용동)
시네마 파크 cinema park
www. cinemapark.kr
광주자동차극장
TEL : 062-575-5717~8

제 5440호 2000년 7월 25일 창사 homae.co.kr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음력 9월 19일)

AICON 광주 2023 개막식 1일 오후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열린 글로벌AI컨퍼런스 'AICON 광주 2023 개막식'에 강기정 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주기환 국민의 힘 광주시당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영산강 반려동물테마파크, 나주에 들어선다

2025년 착공…총사업비 110억 투입 조성

순천만에 버금가는 광활한 영산강 저류지와 연계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전남 나주에 조성된다.

나주시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에 힘입어 반려동물과 반려인구를 위한 '영산강 반려동물테마파크 건립'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시·군이 주도하고 도가 지원하는 대규모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는 도비 5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10억원이 투입된다.

'테마파크 건립'→'반려동물산업 활성화'→'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3단계에 걸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는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오프리시존'부터 애견 수영장, 애견 카페, 입양지원센터 등 복합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전시·체험 활동이 가능한 애견 뮤지엄, 애견 동반 글램핑장인 애니멀스테이 등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을 위한 공간도 동시에 갖출 예정이다.

테마파크 건립은 올해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나주시는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펫푸드 산업 등 반려동물 특화 단지를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류형 펫 관광, 펫헬스케어 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장기 목표인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민선 8기 역점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인 '영산강 나주지구 통합하천'과 연계한 동물공원 조성이라는 점에서 1500만 반려인구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호 기자

신안서도 럼피스킨병…살처분 5천마리 넘어

럼피스킨병 13일 만에 70건 확진…백신 접종률 40%

김영록 지사 "신속한 백신접종…확산 차단 총력"

소 바이러스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 13일 만에 70건이 확진됐다. 살처분 마릿수도 5000마리를 넘어섰다. 정부가 10일까지 백신접종을 마무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까지 접종률은 40%에 육박했다.

1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남 신안 한우농장 1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확인됐다. 신안군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처음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이래 26개 시·군에서 총 70건이 확진됐다. 현재 4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료 채취 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김영록 지사는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소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1일 국내 최초로 발생한 럼피스킨병이 무안에 이어 신안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도내 확산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무안과 합평지역 한우 농장을 방문해 방역 현장을 살폈다.

농장 점검에선 내·외부의 살충·살균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살피고 철저한 소독을 지시한 후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럼피스킨병이 무안에 이어 신안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백신 접종을 신속히 진행하고,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점을 감안해 통합 방역활동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123개반 372명으로 확대한 긴급 백신접종반을 투입해 도내 사육 중인 소 67만 마리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우선 위험지역 10개 시·군은 3일까지 접종을 마치고, 나머지 12개 시·군도 1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긴급방역비 15억원을 투입해 해충 구제 약품을 지원하고 차단방역 강화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하고 있다. 이날까지 럼피스킨병으로 살처분했거나 살처분 예정인 한우와 젖소는 총 5010마리다.

그동안 주로 충남과 경기 화성·평택, 전북 부안과 전남 무안 등 서해안을 비롯해 경기 북부, 강원 등 접경지역 소 농장에서 발생하며 중국이나 북한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했다.

하지만 기존 발생지역과 거리가 상당한 경남 창원에서도 발병하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모기나 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특성이 있고, 잠복기 등을 감안했을 때 이미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 호 기자

규제 해제 등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

기회발전·교육·도심융합·문화특구 파격 특혜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담긴 지방시대 정책은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운영될 4대 특구를 발판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은 기업의 지방투자 기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꼽힌다.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는 약 500만㎡(150만 평), 도 지역에서는 660만㎡(200만 평) 이하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정할 수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된 뒤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업종 변경을 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기업상속세도 감면한다. /김도기 기자

전남 블루워케이션 선보인다 2면
무안서 공항유치 강연회 3면
20·30대 '쉬었음' 늘어 4면